

아굴 어록(잠언 30:1-9)의 신학적 의미와 지혜문학 이해를 위한 기여¹⁾

유선명*

들어가는 말

잠언은 오랫동안 구약성경 내의 이질적인(alien) 존재로 취급되어 왔지만,²⁾ 그 중에서도 아굴의 어록(잠 30:1-9)은 최악의 난해구절로 알려져 있다. 블렌킨숍(Blenkinsopp)은 이 본문을 잠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의미가 불투명한(obscurer) 구절로 지명했고, 이 본문에 관해 영향력 있는 논문을 쓴 릭 무어(Rick Moore)는 간결하게 “이상한 본문(a strange text)”이라고 방점을 찍은 바 있다.³⁾ 여러 주석가들은 이 본문으로부터 서로 모순되는 두 화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믿는다. 즉 경건한 신자의 “신앙고백서”와 성경에서 달리 찾기 어려운 “회의주의자의 선언문”이라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개의 목소리가 불협화음을 이룬다는 뜻이다.⁴⁾ 블렌킨숍은 이러한 부조화는 잠언

*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 1) 2018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임
- 2) Horst Preuss의 구약신학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입장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예리한 비판은 Steiert, *Die Weisheit Israels – ein Fremdkörper im Alten Testament?* (Freiburg: Herder, 1990)을 보라. 필자는 잠언의 신학적 성격을 규명하는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잠언의 의 개념 연구: 신학적, 윤리학적, 비교문화적 고찰』(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9-33을 보라.
- 3) Joseph Blenkinsopp, *Wisdom and Law in the Old Testament: the Ordering of Life in Israel and Early Judaism*, Revised Ed. (Oxford Bible Se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52; Rick D. Moore, “A Home for the Alien: Worldly Wisdom and Covenantal Confession in Proverbs 30.1-9,” *ZAW* 106 (1994), 96.

을 지배하고 있는 정통주의 신학과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메시지를 어정쩡하게 덮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 내린다.⁵⁾ 파스(Fox)는 아굴의 신탁(oracle)은 잠언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잠언에 대한 거부반응(reaction)으로서 책의 말미에 덧붙여졌다고 진단한다. 지혜를 한껏 칭송하고 있는 잠언 전체의 정서에 대해 정통적 약애신앙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문이란 뜻이다.⁶⁾

그러니 위의 학자들의 말처럼 아굴의 어록이 잠언 메시지의 극단성 혹은 편향성을 우려해 교정을 시도하는 글이거나 혹은 잠언이 구약의 중심메세지로부터 지나치게 일탈하지 못하게끔 덧붙인 경고문이라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정통 구약신학의 원류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볼 수도 있을 터이다. 본 논문은 아굴의 어록이 그 자체로서 일관성을 가졌으며 잠언 전체의 문맥이 되는 정경적 이스라엘 지혜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더 나아가 아굴의 어록이 통상적인 지혜신학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요소인 지혜자의 기도문과 "겸손의 신학"을 제공하는 글로서 잠언서의 의미 있는 종결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1. 본문 구조와 번역 설명

아굴의 어록은 아래와 같다. MT 본문을 대체로 따랐지만 MT 와 다른 독법을 취하거나 단어들의 의미, 문법 이해 등 번역과 관련된 논점과 필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번역문 아래에 매 절 별로 설명하였다.

4) 이러한 해석의 계보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Franklyn, "The Sayings of Agur in Proverbs 30: Piety or Scepticism?," *ZAW* 95 (1983), 238을 보라. 잠언 연구사의 포괄적인 기술로는 Whybray, *The Book of Proverbs: A Survey of Modern Study* (Leiden: Brill, 1995)를, 그 중 잠언 30장에 대해서는 86-98쪽을 참고하라.

5) Blenkinsopp, *Wisdom and Law*, 52.

6) Michael V. Fox, *Proverbs 10-31* (AYB; New Haven: Yale, 2009), 861-63.

A

- 1 야케의 아들 아굴의 신탁
이티엘과 우칼을 위한 전갈
- 2 나는 인간도 못되는 짐승
사람의 지혜도 갖지 못했네
-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분의 지식도 알지 못하네

B

- 4 누가 하늘에 올랐다가 내려 왔던가?
누가 바람을 손아귀에 담았던가?
누가 물을 옷자락에 감쌌던가?
누가 대지의 끝자락을 정했던가?
그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여!
- 5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순전하고
그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 6 그분의 말씀에 덧붙이지 말라
그가 너를 꾸짖고 네 거짓됨을 드러낼까 두렵구나

C

- 7 내가 두 가지를 당신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소서
- 8 허망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치워 주시고
가난도 부요함도 내게 주지 마시고
내게 배정된 몫만을 내게 주옵소서
- 9 내가 배불러 당신을 물리치고 "아웨가 누구길래?" 하거나
가난해 도둑잡히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할까 두렵습니다

A, B, C 세 연의 분할은 구성과 내용, 문학적 특징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 A. 자신의 무지에 관한 선언적 고백 (1-3절)
- B. 신성의 탁월함을 일깨우는 수사적 질문 (4-6절)
- C. 전적인 의탁을 고백하는 기도 (7-9절)

A. 자신의 무지에 관한 선언적 고백 (1-3절)

1절

דְּבַרֵי אַגּוּר בְּיָקָה הַמַּשָּׂא
נֶאֱמַר הַגִּבּוֹר לְאִיתִיאל (7) לְאִיתִיאלַע וְאֶכֶל

야케의 아들 아굴의 신탁
이티엘과 우칼을 위한 전갈

아굴 어록 중에서도 1절의 난해함은 특별하다. 특정 단어나 어구의 훼손 (corruption)이나 희귀한 단어 때문이기보다는 여러 곳에 있는 모호성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1절에서 많은 해석자들은 마소라 본문의 **הַמַּשָּׂא** 대신 **מַשָּׂא**나 **מַשָּׂאִי**를 가정해 “마싸 족속 아굴” (Agur the Massaitite)라 읽는다. 이것은 비교적 가벼운 수정이고 많은 해석자들이 채택하는 “해법”이지만, 본문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반드시 수용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MT를 그대로 따를 경우 **הַמַּשָּׂא**는 예언자들의 권위있는 선포의 말을 가리키므로 (렘 23:34-40에 다수; 슥 12:1; 말 1:1)⁸⁾, 이 절에서 마싸가 연이은 네움과 짝을

7) MT 의 **הַמַּשָּׂא** 대신 **מַשָּׂאִי**를 택함. 본문비평 결정의 근거와 상응하는 번역은 아래 본문을 참조. 이 문구의 다양한 해석과 그에 기초한 한국어 및 영어 역본들의 상세한 분석은 김정우, 『성서주석 잠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773-775를 참조하라.

이름으로써 '선포' 혹은 '신탁'을 뜻하는 두 단어의 중첩에 의한 강화효과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אָנֹכִ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되지만 사람의 중대한 말을 가리켜도 적용된다. 그 예로 삼하 23:1에서는 다윗의 유언을 הַנְּבִיאִים אָנֹכִי “용사의 선언” 으로 불렀고, 민수기 24:15에는 모압 왕 발락의 복채를 받은 선견자 발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선언하려는 참에 자신의 영험함을 과시하는 투로 אָנֹכִי אֱמַר וְגַם אֶבְרָהָם 그리고 אָנֹכִי אֱמַ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굴의 어록에서도 내음을 아굴이 일차적으로 이티엘과 우칼, 궁극적으로는 그 이후의 모든 독자에게 선언하는 전갈로 이해하면 표제어는 “야케의 아들 아굴의 신탁”이 된다.

MT 의 모음표기대로 אֱלֹהֵי אֶתְיֵאל וְאֶתְיֵאל을 번역하면 “이티엘에게, 이티엘과 우칼에게” 정도가 될 것이다. 이티엘 이란 이름은 느헤미야 11:7에 나오고 우칼은 히브리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셈족 언어로서도 히브리어로서도 사용 가능한 이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기관의 복사과정에서 레이티엘 אֱלֹהֵי이 중복된(dittography) 경우를 상정하면 “이티엘과 우칼에게 주는 전갈/메세지” 의 뜻을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이집트 지혜문헌에는 현자가 제자에게 (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라는 형식으로) 주는 교훈을 수신자의 이름을 밝힐 경우 “아무개의 아들 누구에게” 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본문을 더 심하게 변조해서 “나는 곤합니다, 하나님. 나는 곤하고 지쳤습니다” 류의 번역을 취해야 할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⁹⁾ 이러한 독법은 30:7-9에 수록된 아굴의 기도를 예견하는

8) 마짜 אֶתְיֵאל은 אֶתְיֵאל와 연관되어 "집"을 뜻하며 예언서의 문맥에서 신탁oracle, 선언을 뜻한다.

9) 대표적인 예로 아래 글들을 보라. Fox, *Proverbs 10-31*, 853-54; Richard Clifford, *Proverbs*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9), 259-60; Christine Yoder, “On the Threshold of Kingship: A Study of Agur(Prov 30),” *Interpretation* 63 (2009), 260. 이들의 본문수정은 구체적인 문법적 설명과 번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אֱלֹהֵי אֶתְיֵאל וְאֶתְיֵאל을 *l'-b* 와 *k-l-b*를 어근으로 하는 동사절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점에서 일치를 보인다. 월트키는 אֶתְיֵאל의 해석을 놓고 뚜렷한 정설이 없다는 말 외에 특별한 설명 없이 “오 하나님 나는 지쳤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Waltke, *Proverbs 16-31*, 455-56.

대칭성과 전체적 어조의 통일성은 물론 다윗의 내용과 상통하는 유언의 비장미를 확보해 주는 해석학적 매력이 있다. 그러나 전승된 MT 본문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얻어지는 상기의 해석을 버릴 만치 결정적 우위에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야케의 아들 야굴의 신탁, 이티엘과 우칼을 위한 전갈”을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번역으로 채택한다.

2절

כִּי בָעַר אֲנֹכִי מֵאִישׁ
וְלֹא־בִינַת אָדָם לִי

나는 인간도 못되는 짐승
사람의 지혜도 갖지 못했네

짐승을 뜻하는 **בָּעַר**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어리석음 무식함 거침 등의 특징을 빗대지만, 야굴은 부정(negation), 부재 혹은 결핍을 나타내는 전치사 **מִן**을 **אִישׁ**에 덧붙여 **מֵאִישׁ**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묘사를 덧붙이고 있다. 야굴이 자신을 “인간이 아닌 짐승” 혹은 “인간에 미치지 못하는 짐승같은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잠언같은 글을 쓰는 지혜의 스승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대근동 지혜문헌에서 선례가 없는 파격적 자기비하의 표현이다.

3절

וְלֹא־לְמִדְתִּי חֲכָמָה
וְדַעַת קְדָשִׁים אֲדַע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분의 지식도 알지 못하네

“거룩한 자” **קָדוֹשׁ**은 “거룩하다”의 남성복수형으로 명예와 존중을 나타내는 최상급으로 이해된다.¹⁰⁾ **קָדוֹשׁ**은 잠 9:10에서 야웨 하나님을 가리키는 절과 평행구조로 나타나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본절의 **קָדוֹשׁ** 역시 추상적인 “가장 거룩한 지식” 보다는 “가장 거룩한 이의 지식”을 가리킨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지식이 그분에 관한 지식인지 그분께 속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식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4절이 이리이러한 분이 누구냐? 라는 수사적 질문으로서 “오직 그분!”이라는 답을 기대하고 있다면, 3절에서의 지식은 아굴이 주체적으로 “나는 그분을 안다”로 해제할 수 있는 “그분에 관한 지식” 보다는 “오직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께만 속한, 지식”이라는 뉘앙스를 가진다고 짐작된다.

B. 신성의 탁월함을 일깨우는 수사적 질문 (4-6절)

4절

מִי עָלָה-שָׁמַיִם וַיֵּרֵד
 מִי אָסַף-רוּחַ בְּחַפְזֵנוּ
 מִי צָרַר-מַיִם בְּשִׂמְלָה
 מִי הָקִים כָּל-אַפְסֵי-אָרֶץ
 מִה-שָׁמוּ וּמִה-שָׁם-בָּנוּ כִּי תִדַע

누가 하늘에 올랐다가 내려 왔던가?
 누가 바람을 손아귀에 담았던가?
 누가 물을 옷자락에 감쌌던가?
 누가 대지의 끝자락을 정했던가?
 그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여!

10) Waltke and O'Connor, *IHBS* §7.4.3b 참조.

BHS 각주를 포함해 일부 해석자들은 말미의 키 테다, **כִּי תִרְע** (“내가 안다면,” “내가 알기에”)가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문구 없이도 4절 말미에 “그 이름은,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의문문으로 마치는 것으로 이해해도 뜻이 통한다. 그러나 이 경우 **כִּי תִרְע**라는 불필요한 표현이 어떻게 이 본문에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Fox와 Clifford는 욥기 38:5에 나오는 우주의 장엄함과 신비로부터 창조자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이끄는 수사적 질문을 모방해 **כִּי תִרְע**가 이곳에 스며들었다고 확신하지만¹¹⁾ 그러한 가정이 이 본문의 해석을 위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보다 우선되어야 할 작업은 4절이 누구의 질문인지, 이 문단의 수사학적 흐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¹²⁾ 4절에서 질문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견해는 전체의 흐름상 무리한 해석이다. 일부 헬라이어역 사본에 키 테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고 시리아 역본에 “아굴이 말하기를”이라는 구절이 4절 초두에 나오는 것은 의미 있는 사실이지만, **כִּי תִרְע**를 아굴의 질문으로 이해하면서도 그 구절의 존재가 전체 단락을 의미 없게 만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는 못한다.

마소라 본문 **כִּי תִרְע**를 원문으로 유지하는 또 한 가지 독법은 본문의 분절 경계선을 바꾸는 방안이다. Fox는 4절 말미의 “누가 대지의 끝자락을 정했던가”까지를 수사적문문의 범위로 잡고, **כִּי תִרְע**는 5절 도입부로 연결 시킴으로써 5절 내용 전체가 “너는 안다 – ”라는 지식의 내용이라고 해석한다.¹³⁾ 그러나 본문의 수사적 흐름상 MT 본문의 **כִּי תִרְע**를 유지하면서 그 의미의 미묘한 함축성을 살리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필자는 이 본문에서 **כִּי תִרְע**의 역할을 의미상 앞부분과 뒷부분 양쪽 모두에 연결되는 “아누스적 접속”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¹⁴⁾ 즉 **כִּי תִרְע**가 4절 말미에서 앞서 던져진

11) Fox, *Proverbs 10-31*, 858; Clifford, *Proverbs*, 260.

12) Clifford(*Proverbs*, 260)는 **כִּי תִרְע**가 바티카누스와 시나이티쿠스 사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본학적 논증 외에도 이 지점에서 질문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굴이므로 **כִּי תִרְע**를 두면 히브리어 원문의 수사적 의미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13) Fox, *Proverbs 10-31*, 857-58.

14) 여기에서 **כִּי תִרְע**의 아누스적 접속 기능은 이 절의 근본적 의미의 복잡성이 아닌 수사전략

수사의문문들의 수사적 호소력을 강화해 주는 동시에 5절의 도입부로 기능하여 뒤따르는 내용으로 매끄럽게 연결시켜 준다는 뜻이다. 매우 다양한 논리적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כִּי의 특성상 תַּרְעַע כִּי를 “내가 안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내가 알다시피”라는 כִּי의 강조적 (asseverative) 용법으로 이해한다면,¹⁵⁾ תַּרְעַע כִּי가 수사의문문이 기대하는 대답을 이끌어냄으로써 맺음을 지어주는 동시에 5절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불러들인다고 볼 수 있다.

5절

כָּל-אֲמַרְתָּ אֱלֹהֵי צְרוּפָה

-
- 즉 담론(discourse) 수준에서의 모호성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한 단어의 중의성(polysemy)에 의존하는 '야누스 평행법'(Janus parallelism)과는 다르다. 후자는 한 단어의 두 의미 중 하나를 앞 시행에, 다른 의미를 뒤 시행에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고든(Cyrus Gordon)의 우가릿 시행 연구 및 뇌겔 (Scott Noegel)의 욥기 연구서를 통해 주목받은 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다른 셈어 문헌들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Cyrus Gordon, “New Directions,” *The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of Papyrologists* 15:2 (1978), 59-66; Scott Noegel, *Janus Parallelism in the Book of Job*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9); 동저자의 “Janus Parallelism in Job and Its Literary Significance,” *JBL* 115:2 (1996), 313-20을 보라. 쥬무라(David Toshiro Tsumura)가 나훔 1:8의 연구에서 야누스 평행법과 일본 시작법간의 유사성을 지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Tsumura, “Janus Parallelism in Nah 1:8,” *JBL* 102:1 (1983), 109-11. 야누스 평행법에 관한 간결한 소개는 Wilfred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corrected repr. ed; London and New York: T. & T. Clark, 2005), 159; 뇌겔에 대한 평가와 야누스 평행법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Jeff Lindsay, “Janus Parallelism in the Book of Job: A Review of Scott B. Noegel’s Work,” *Interpreter: A Journal of Mormon Scripture* 27 (2017), 213-220을 참조하라.
- 15) 로날드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 (김영옥 옮김; 서울: 그리스, 2012) §444-452; Waltke and O’Connor, *IBHS* §38.1-38.6 참조. 접속사 כִּי의 기능과 해석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는 A. Aejmelaeus, “Function and Interpretation of כִּי in Biblical Hebrew,” *JBL* 105 (1986), 193-209; E. E. Meyer, “The Particle כִּי, a Mere Conjunction or Something Else?” *JSNL* 27 (2001), 39-62; 고전적 연구로 James Muilenburg, “The Linguistic and Rhetorical Usages of the Particle כִּי in the Old Testament,” *HUCA* 32 (1961), 135-60 을 참조하라.

מִזֶּן הוּא לְחֹסִים בּוֹ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순전하고
그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제루파”(זְרוּפָה)는 정련의 결과로 얻어진,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를 가리킨다. 하나님 말씀의 순전함은 6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 덧붙이지 말라는 명령을 예견하게 한다.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순물일 뿐이라는 암시이다.

6절

אַל-תּוֹסֶף עַל-דְּבָרָיו
כִּי-יִזְכֹּךְ בָּךְ וְיִכְזֹבֶת פֶּה

그분의 말씀에 덧붙이지 말라
그가 너를 꾸짖고 네 거짓됨을 드러낼까 두렵구나

6절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한다. “덧붙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형태는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형이지만 “더하다”는 의미를 가진 어근 *y-s-p*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데는 고급의 주석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말씀에 덧붙이지 말라는 경고는 ‘정경 공식’ 즉 기록된 말씀의 정경적 권위를 확인하는 정형화된 진술일 수도 있지만,¹⁶⁾ 아굴이 1절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마짜라 부른 것을 고려할 때 이미 문서화된 정경을 넘어서 자신의

16) 신명기에 사용된 표현으로 Fox(*Proverbs 10-31*, 858)와 Waltke(*Proverbs 16-31*, 477)는 ‘canonical formula,’ 김정우(『성서주석 잠언』, 780)는 ‘정경적 형식,’ 김희석은 ‘정경 양식’이라 부른다. 필자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명령은 정형화된(stylized) 진술방식이긴 하나 특정한 문학적 형식/양식(literary form)으로 보기는 불충분하다 판단해 canonical formula의 역어로 ‘정경 공식’을 제안한다.

어록 역시 신적 권위의 휘광을 입고자 하는 바람이 반영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정경적 접근의 주창자인 브레바드 차일즈는 이 본문에서 사람의 경험과 사색에서 출발한 잠언들이 이스라엘의 여타 전승들에 합류해서 성경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평한다.¹⁷⁾

C. 전적인 의탁을 고백하는 기도 (7-9절)

7절

שְׁתִּים שְׁאַלְתִּי מֵאֲתָךְ
אֶל-תְּמִנֶּנֶ מִמֶּנִּי בְּטָרָם אָמוֹת

내가 두 가지를 당신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소서

“죽기 전에” 아굴은 “속히, 지체 없이” 등의 표현 대신 자신이 죽기 전이라고 말한다. 본문에서 아굴의 나이나 건강 상태, 주변 상황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 표현은 아굴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것으로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서가 된다. 프랭클린은 **מָוֹת**과 동사 **מָוַת**의 분포 패턴을 근거로 (시 39:14, 욥 10:21; 창 45:28) 아굴은 자신의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긴급함으로 마지막 소원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¹⁸⁾

17) Brevard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556을 참조하라.
“[Proverbs 30:5-6] registers the point that the proverbs which originally derived from man’s reflection on human experience of the world and society had become understood as divine words to man which functioned as sacred scripture along with the rest of Israel’s received traditions.” 차일즈의 관심은 다양한 전승들이 권위 있는 본문으로 확정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인 정경 텍스트에 있지만, 필자는 이 본문의 발화자(저자)인 아굴의 의식 내에서 그리고 그 기록물인 이 본문 내에서 신적 권위가 인지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8절

שָׁא וּדְבַר־כָּזָב הִרְחַק מִמֶּנִּי
רֹאשׁ וְעֵשֶׂר אֶל־תַּתִּין־לִי
הִטְרִיפְנִי לְחָם חֲקִי

허망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치워 주시고
가난도 부요함도 내게 주지 마시고
내게 배정된 몫만을 내게 주옵소서

“치워 주시고” **הִרְחַק מִמֶּנִּי**는 *r-b-q*의 히필 명령형으로 문자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게 하시고” 이다. 치우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서술한다. 아굴은 자신이 허망함과 거짓말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치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חֲקִי**는 “내 몫의 음식”을 뜻한다. **חֲקִי**의 어근인 *b-q-q*는 “새겨 넣다” “지정하다”는 뜻을, 명사형 **חֶק**은 기본적으로 “배당분”을 가리킨다. 잠언 8:29 (바다의 경계선을 지정); 예레미야 31:35 (해와 달이 낮과 밤의 빛으로 배정됨) 신명기 33:21 (갓 지파에게 배당된 땅) 등에 이런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9절

פֶּן אֲשַׁבַּע וְכַחֲשֵׂתִי וְאָמַרְתִּי מִי יְהוָה
וּפֶן־אוֹרֶשׁ וְנִגְבַּתִּי וְתַפְשֵׂתִי שֵׁם אֱלֹהֵי פ

내가 배불러 당신을 물리치고 “야웨가 누구길래?” 하거나
가난해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할까 두렵습니다

18) Franklyn, “The Sayings of Agur,” 249, n.43.

이 절에서 아굴이 염려하는 가상적 질문 **יִשְׁאָל** “아웨가 누구길래?”는 4절에 나오는 일련의 수사적 질문을 반영하고 있다. 하늘에 올랐다 내려온 분, 바람을 손아귀에 담고 물을 옷자락에 썼던 분, 대지의 끝자락을 정했던 그 분이 아웨 하나님하신 걸 누가 모르겠는가! 그런데 아굴은 자신이 배불러지면 그 하나님을 잊고 그제 누구냐고 거들먹거리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2. 아굴 어록의 가르침

2.1. 겸손의 고백

아굴의 어록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나사와 네움이라 불러 신적 기원과 권위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낮추는 “겸손의 신학”이라 명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고체계가 담겨있다. 무엇보다도 아굴은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추어 표현한다. 어느 지혜자라도 인정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자신이 보통 사람만도 못한 존재, 아니 사람도 못되는 짐승이라는 극단적인 선언이 그의 글 안에 있다. 이런 과도한 겸손은 지혜문학의 일반적 어조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콕스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지혜를 갖지 못했다는 자각이 이러한 겸손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즉 아굴이 이 어록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의 지혜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경건함으로 구현되는 도덕적 지혜(ethical wisdom)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의 실질적 지혜(practical wisdom)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한 빼어난 지성(erudition)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¹⁹⁾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독특하고 우월한 지성이나 판단력을 가정하지 않아도 첫 연의 소박한 고백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종교적이 아니어도

19) Fox, *Proverbs 10-29*, 861.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못한 점들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성향이 있다. 하물며 말씀의 지혜로 수련을 쌓은 지혜자요 스승이라면 아굴이 나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아굴에게 있어 첫 연의 “낮음의 선언”은 지학과 다르다. 첫 연(1-3절)을 지배하는 자기비하는 사실상 둘째 연(4-6절)에서 일련의 수사의문문에 의해 표현된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을 위한 배경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의 누추함을 확인해 본 신앙인이기에, 그리고 마치 화폭에서 밝은 빛줄기를 나타내기 위해 주위를 검게 칠하는 화가처럼 자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아굴은 자기 자신을 그처럼 낮추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모세가 땅에 엎드리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이사가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외쳤듯 이(사 6:5, 천주교주교회역).

둘째 연의 하나님 찬가는 다양한 신학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4절에 나타나는 온갖 자연현상의 열거와 (하늘, 바람, 물, 대지)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찬양은 읊기의 것과 유사하다. 5절 상반절의 말씀 칭송(“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순전하고”)²⁰⁾ 하반절의 하나님 신뢰의 고백(“그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로다”)은 매우 전형적인 시편의 언어와 표상을 채택하고 있다.²¹⁾ 6절의 경고(“말씀에 덧붙이지 말라”)는 신명기의 어조에 매우 가깝다.²²⁾ 이처럼 구약성경의 전형적인 모티프들을 구사하는 둘째 연은 그 자체로서 풍부한 내용과 형식을 지닌 찬가(hymn)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굴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앞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담은 짧은 성서신학을 전개한 것이다.

아굴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셋째 연은 기도문이다. 잠언서 내에는 경건한 신앙생활과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풍부하다. 그러나 잠언 전체를

20) 시편 19:7-9 등.

21) 예, 시편 18:30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22) 신명기 4:2; 12:32.

통틀어 실제 기도문의 모양을 갖춘 것은 아굴의 기도문(30:7-9)이 유일무이하다.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 항목 즉 (1) 자신의 순전함을 위한 기도와, (2) 온전한 신뢰를 위한 요청으로 구성된다. 앞서 보았듯 아굴은 지혜문학 특유의 정서인 지성과 의지의 자율성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아굴의 간청에서 허망함과 거짓말을 멀리 하는 주체는 자신의 훈련된 의지가 아니다. “내가 ...을 멀리 하였습니다”라는 의지의 표명도 없다. 아굴은 너무나 단순 명확하게, 그것도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허망함과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굴의 기도에 담긴 이와 같은 긴박함은 뜻 깊은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아굴의 당부에는 “마씨”라는 타이틀이 부여되어 있다. 다윗의 경우처럼 아굴이 이 가르침을 자식들 내지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 혹은 유언으로 생각한다면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기고 싶은 메시지의 무게감은 더 기중된다.

2.2. 신뢰의 고백

아굴의 기도를 힘 있는 기도로 부각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태도이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것은 지혜문학의 일반적 특성과 대조를 이루는 입장이다. 구약의 지혜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와 인간 이성의 자율성(autonomy)을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구약성경의 여타 부분에 비해 지혜문학이 인간의 사고력과 판단력, 결단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²³⁾ 특별히 잠언은 독자를 향해 생각하라, 이해하라, 결단하라, 행동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기에 아굴의 기도는 그러한 배경에서 더 조명 받아 마땅하다.

23) 판단과 선택의 주체로서의 인간 이해는 특별히 잠언에 잘 드러나 있다. 이에 관한 간결한 논의는 리처드 클리포드, 『지혜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68-69를 참조하라.

여기에서 קָנָה מְאֹד의 의미가 무엇인가? 혹자는 아굴이 요청한 것은 적정 선의 부이므로 קָנָה מְאֹד는 부요함도 가난함도 아닌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런 해석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영어표현 “neither poverty nor riches”가 일상적 관용어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짐작된다. 바로 그 문구를 제목으로 삼은 저서에서 블롬버그(Blomberg)는 아굴이 요청한 삶의 본질을 “중산층의 이상(the middle-class ideal)”이라 명명했다.²⁴⁾ 롱맨(Longman)은 아굴이 “중산층의 신분(middle-class status)”을 구했다고 적시한다.²⁵⁾ 아굴의 기도에 담긴 정신을 정직성과 검소함으로 요약하면서 그러한 정신을 통해 “회계의 진실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부와 가난의 위협에서 벗어나 지족하는 중산층 경제”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논술한 경영학 연구도 있다.²⁶⁾ 다시 말해 아굴의 요청이 도덕적 신앙적 범주를 넘어 자본주의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영학자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아굴의 요청이 “적정 수준의 부”라는 해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잠언이 가르치는 부의 개념은 소유와 재화의 범주를 넘어서는 신학적 영역에서 파악되어야 한다.²⁷⁾ 더구나 아굴의 바람이 일정 수준의

24) 블롬버그는 잠언이 말하는 중산층 생활은 오늘날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훨씬 낮은 생활수준에 해당한다고 부연하지만 그러한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Blomberg, *Neither Poverty Nor Riches*, 68).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중산층” 생활이 어떠했으리라는 추정의 정확성 여부와 무관하게, 아굴의 기도가 어느 사회의 특정 계층을 이상화한다는 가정은 아굴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25) Tremper Longman III, *Proverbs* (Grand Rapids, MI: Baker, 2006), 525. 롱맨은 이 진술에서 status 라는 단어를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이 표현을 통해 적절한 소유 혹은 절제된 소비라는 행동양상을 넘어 사회학적 계층개념까지를 명시하기 원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의 주장이 수입 혹은 재산이라는 산술적 척도를 기준으로 어떤 수준을 정한다는 사고체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6) 김형철, “아굴 기도의 경제적 함의,” 「로고스경영연구」 15:4 (2017), 13.

27) 부 혹은 부/가난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다. 기본적 이슈의 조망은 R. N. Whybray,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JSOTSup 99;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Press, 1990); 부 개념에 관한 이집트 지혜문헌 특히 「아메네모페」와

재화나 중산층 신분에 있다는 해석은 피상적이다.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소득이나 신분의 명시화가 아니라 아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김희석의 아래 평은 그러한 내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가난이나 부요 같은 극단을 피하고 오직 정해진 것으로 만족하게 해 달라는 중용 혹은 겸허의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²⁸⁾ 와이브레이(Whybray)는 이러한 “평균치 모델”에 비해 부에 대해 조금 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에게 פָּנִי מְבֹרָה는 “bare sufficiency” 즉 굶지 않을 만큼의 소유이다. 아굴에게 부요함은 절대적으로 회피해야 할 그 무엇이며 “헛된 것과 거짓말”과 같은 수준의 악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²⁹⁾ 그러나 와이브레이의 견해 역시 פָּנִי מְבֹרָה를 두 극점 사이의 어느 지점을 고정한다는 점에서는 “평균치 모델”과 본질상 다르지 않다. פָּנִי מְבֹרָה를 기아상태를 겨우 벗어난 수준의 생활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굴의 의도와는 빗나간 면이 있다. 아굴이 간구하는 내용은 굶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양식을 달라는 데 있지 않다.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분량적 이해 역시 아굴의 간구를 협소한 시각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아굴의 기도가 지향하는 궁극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 해답의 모색은 פָּנִי מְבֹרָה를 적정 수준이라는 양적 척도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배정된 몫”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배당분 פָּנִי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아굴에게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이 일차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제나 적정선 등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잠언의 비교연구는 Harold Washington, *Wealth and Poverty in the Instruction of Amenemope and the Hebrew Proverbs* (SBLDS 142; Atlanta, GA: SBL Press, 1994); 부와 가난에 관한 담화가 갖는 수사적(rhetorical) 기능에 대해서는 Timothy Sandoval, *The Discourse of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Leiden: Brill, 2005); 잠언 내에서 부와 미덕의 교차적 비교 및 양자 간의 선택에 내재한 가치평가 시스템에 관한 분석은 유선명, 『잠언의 의 개념 연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165-200; 성경 지혜문헌에서 일어나는 부 개념의 신학화 현상 분석은 조용식, “지혜 문학에 나타난 부의 개념과 신학적 의미,” *Canon&Culture* 3:2 (2009), 151-175를 참조하라.

28) 김희석, “잠언 30:1-9의 해석과 신학적 함의,” 『신학지남』 81:4 (2014), 26.

29) Whybray, *Wealth and Poverty*, 79-80.

매우 래디칼한 요청이 아굴 기도의 핵심에 있음을 보게 된다.

קָנָה מִנְּחָה를 달라는 아굴의 기도는 연봉 일액은 너무 많고 삼천은 너무 적으니 오천을 달라는 식의 수량화된 요청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사라는 순종의 기도이다.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을 소유해야 풍족이 교만이 되지 않고 핏절이 범죄로 이끌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지를, 지혜가 없고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나의 선택에 맡겨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 배급해 달라는, 전적 의탁의 기도(a prayer of total surrender)가 아굴 기도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와 같은 아굴의 태도는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지만 삶에 주어지는 은사(gift) 보다 그 은사를 주시는 이(giver)에게 더 마음을 두는 영성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기름진 땅을 먼저 택해 제 갈 길로 간 롯을 생각하며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신 말씀이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하나님이 곧 아브람의 상급, 즉 뭇이라는 사실만큼 위로가 되는 일이 있을까. 시편 73편은 더 복합적으로 아굴의 기도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편 73편의 저자도 자신이 קָנָה “짐승”이라 고백한다. 세상의 악과 악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 스스로 고민하고 분노하고 믿음의 위기에 처했던(시 73:13-16) 자신을 가리켜 붙여준 명칭이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득 깨닫고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 내놓은 고백이 무엇인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בֶּטֶן)이시라(시 73:25-26, 개역개정).”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상급과 분깃으로 보이고 나면 자신의 배당분에 대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적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고 적절히 저축을 하고 자기 인생을 잘 운영하는 것 역시 슬기로운 모습이었으나, 아굴처럼 그 적절함조차도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그래서 배당받은 몫(배급)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자세는 잠언은 물론 지혜문학 교훈의 일반적 정서를 뛰어넘는 궁극의 지혜라 할 것이다.

3. 아굴 기도과 주기도문

아굴의 기도 중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간구는 주기도문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와 종종 비교되어 왔지만³⁰⁾ 바이아전(Byargeon)은 아굴 기도문의 구조 분석을 통해 두 기도의 유사성을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한다.³¹⁾ 바이아전의 설명에서는 양쪽 칼럼의 교차구조(chiasm)가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기에, 상응하는 요소들에 A::A' B::B' C::C' 의 기호를 넣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굴의 기도에서 두드러진 세 요소가 (A-B-C) 주기도문에 역순으로 (C'-B'-A')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아굴	주기도문
허탄함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치워 주시고	A C'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게 배정된 몫 만을 내게 주옵소서	B B'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욕되이 할까 두려우니	C A'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성도들이 드릴 기도의 모범이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을 명확히 해준다. 잠언이 그리는 모범적 인간상을 가장 잘 집약한 것은 의인 “짜딕”(צַדִּיק)이다. 의인은 지혜롭고 의인은 유능하며, 의인은 행복하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 되기까지 모방해야 할 모델이 의인인 것이

30) 팩스 역시 아굴의 기도과 주기도문 간의 유사성을 반향(echo)으로 파악하지만 상세한 논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Agur’s prayer is echoed in Matt 6:11 = Luke 11:3,” *Proverbs 10-31*, 860.

31) Rick W. Byargeon, “Echoes of Wisdom in the Lord’s Prayer (Matt 6:9-13),” *JETS* 41:3 (September 1988), 365. 윌트키(*Proverbs 16-31*, 479)와 롱맨(*Proverbs*, 252-26)은 바이아전의 핵심주장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다.³²⁾ 잠언은 의인의 삶을 묘사해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의로운 길을 걷게 하는 도덕적 강화로 가득 차있다. 따라서 우리는 잠언 안에 기록된 유일한 기도문인 아굴의 기도(잠 30:7-9)가 구약의 맥락에서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 기도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굴의 기도가 유대인의 모범적 기도로서 주기도문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기도생활을 하셨고 생애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으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굴의 기도와 주기도문을 연결한다면 조금 더 나아가 산상수훈의 맥락을 기억할 수 있다. 아굴이 하나님의 배당분을 구한 태도와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공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들에 핀 백합화 하늘 나는 새를 들어 일상의 염려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일갈하신 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 6:30-32)고 타이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굴의 기도에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을 우리가 믿기 바라신 것 아닌가. 아굴의 교훈은 잠언 지혜문학 구약의 경계를 넘어 모든 하나님 백성이 본받고 배울 신뢰의 기초인 겸손의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나가는 말

아굴의 요청이 금전적 욕구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 진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들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매우 타당하다. 굿차일드(Philip Goodchild)는 돈이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책점이

32) 유선명, “잠언에 나타난 의인의 모습,” *Canon&Culture* 10:1 (2016), 173-203. 보다 확대된 논의는 유선명, 『잠언의 의 개념 연구』(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를 참조하라.

자 경쟁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과 돈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범주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범주를 ‘에너지’ 혹은 ‘권위’라 칭한다. 이들이 바로 정치적 신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그러한 에너지의 궁극적 구현은 하나님, 진리, 그리고 돈이다. 이들의 이름을 건다면 어떤 일이든지 행해질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곧 궁극의 권위이다.³³⁾

돈이 궁극의 권위로 변환되는 현상 즉 돈의 우상화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며, 굿차일드의 이러한 통찰 역시 자신도 인정하듯 오랜 뿌리를 지니고 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정언에(마 6:24), 그리고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한 이스라엘 지혜자들이 되뇌었을 아굴의 기도(잠 1:7)에 이미 드러나 있다. 하나님이라는 궁극의 권위에 의탁하지 않는 이는 “사람도 못되는 짐승”의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을 자기 인생의 몫으로 수용한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값진 인생으로 나아간다. 맘몬의 힘을 절실히 체감하는 이 시대에 아굴의 어록은 여전히 진실하고 생동하는 고백이자 교훈으로 그의 고뇌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33) “God and money both belong to a metaphysical category that is beyond existing structure of representation. We have named this category political ‘energy’ or ‘authority.’ It is the constitutive element of a political theology... The supreme embodiment of such energy in the contemporary world are God, truth, and money. These are the supreme authorities. Anything can be done in the name of God, truth, or money.” 이 진술의 맥락과 확장가능성에 대해 Philip Goodchild, *Theology of Mone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9)를 참조하라. 인용문은 필자의 사역임.

<주요어>

아굴, 잠언, 부, 가난, 주기도문

<Key words>

Agur, Proverbs, wealth, poverty, The Lord's Prayer

* 접수일 2018년 2월 28일, 수정일 2018년 3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8년 3월 30일

참고문헌

- 김정우. 『성서주석 잠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형철. “아굴 기도의 경제적 함의.” 「로고스 경영연구」 15:4 (2017), 1-16.
- 김희석. “잠언 30:1-9의 해석과 신학적 함의.” 「신학지남」 81:4 (2014), 7-35.
- 유선명. “잠언에 나타난 의인의 모습.” *Canon&Culture* 10:1 (2016), 173-203.
- _____. 『잠언의 의 개념 연구: 신학적, 윤리학적, 비교문화적 고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리처드 클리포드. 안근조 옮김. 『지혜서』. 구약학입문시리즈 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주용-무라오카. 『성서히브리어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로날드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 김영옥 역. 서울: 그리스심, 2012.
- Aejmelaeus, A. “Function and Interpretation of ׀ in Biblical Hebrew,” *JBL* 105 (1986), 193-209.
- Blenkinsopp, Joseph. *Wisdom and Law in the Old Testament: The Ordering of Life in Israel and Early Judaism*. Rev. ed. Oxford Bible Series. Oxford, 1995.
- Blomberg, Craig L. *Neither Poverty Nor Riches: A Biblical Theology of Material Possessions*. Grand Rapids, MI: Eerdmans, 1999.
- Byargeon, Rick W. “Echoes of Wisdom in the Lord’s Prayer (Matt 6:9-13).” *JETS* 41:3 (1988), 353-365.
- Childs, Brevard.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 Clifford, Richard. *Proverbs*.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9.
- Fox, Michael V. *Proverbs 10-31*. AYB 18B. New Haven & London: Yale, 2009.
- Franklyn, Paul. “The Sayings of Agur in Proverbs 30: Piety or Scepticism?” *ZAW* 95 (1983), 229-252.
- Goodchild, Philip. *Theology of Money*. Durham and London: Duke

- University Press, 2009.
- Gordon, Cyrus. "New Directions," *The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of Papyrologists* 15:2 (1978), 59-66.
- Lindsay, Jeff. "Janus Parallelism in the Book of Job: A Review of Scott B. Noegel's Work." *Interpreter: A Journal of Mormon Scripture* 27 (2017), 213-220.
- Longman III, Tremper. *Proverbs*. Grand Rapids, MI: Baker, 2006.
- McKane, William. *Proverbs*. OTL. London: SCM, 1970.
- Meyer, E. E. "The Particle ׀, a Mere Conjunction or Something Else?" *JSNL* 27 (2001), 39-62.
- Moore, Rick D. "A Home for the Alien: Worldly Wisdom and Covenantal Confession in Proverbs 30,1-9," *ZAW* 106 (1994), 96-107.
- Muilenburg, James. "The Linguistic and Rhetorical Usages of the Particle ׀ in the Old Testament," *HUCA* 32 (1961), 135-60.
- Noegel, Scott. "Janus Parallelism in Job and Its Literary Significance," *JBL* 115:2 (1996), 313-20.
- _____. *Janus Parallelism in the Book of Job*.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9.
- Toy, Crawford H. *The Book of Proverbs*. ICC. Edinburgh: T. & T. Clark, 1899.
- Tsumura, David Toshiro. "Janus Parallelism in Nah 1:8," *JBL* 102/1 (1983), 109-11.
- Waltke, Bruce K. *The Book of Proverbs 16-31*.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 Waltke, Bruce K.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IBHS]
- Watson, Wilfred G. 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Corrected Reprint. London and New York: T. & T. Clark, 2005.
- Whybray, R. N.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JSOTSup 99.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The Book of Proverbs: A Survey of Modern Study*. Leiden: Brill, 1995.

유선명 | 아굴 어록(잠언 30:1-9) 의 신학적 의미와 지혜문학 이해를 위한 기여 57

Yoder. "On the Threshold of Kingship: A Study of Agur (Proverbs 30)," *Interpretation* 63 (2009), 254-63.

<초록>

아굴 어록(잠언 30:1-9)의 신학적 의미와 지혜문학 이해를 위한 기여

유선명 교수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아굴의 어록(잠언 30:1-9)은 지혜의 본질과 획득 방법에 대한 고유한 이해와 삶의 근본가치에 대한 색다른 성찰로 인해 지혜 전승 내의 이단아 취급을 받아 왔다. 특히 자신의 무지함을 토로하는 고백(1-3절)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주신 몫만을 구하는 기도문(7-9절)은 구약성경 내에서도 고대근동 지혜문학 내에서나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렵다 보니 현재의 정경적 위치에서 아굴 어록은 잠언의 본래 수집물 뒤에 덧붙여진 부록 즉 편집과정에서 특별한 의도 없이 덧붙여진 추가분이거나 이전 내용들을 교정하기 위한 시도로 치부되곤 한다. 본문의 논리적 외곽선이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각인각색으로 나뉜다는 것도 해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아굴의 어록이 그 자체로서 고유한 문학적 통일성을 갖고 있으며 전체로서 잠언의 신학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독특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잠언서의 유일한 기도문인 7-9절 본문은 부와 가난을 직시하는 신학의 윤곽을 그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목소리를 들려준다. 아굴의 경건은 시편 73편을 비롯한 다수의 시편들 특히 지혜시편과 상통하는 정서를 갖고 있으며 구약성경에 흠어져 있는 계시의 신학관도 연관성을 견지한다. 아굴의 어록은 결코 지혜신학의 변두리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지혜신학의 풍성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본문이다. 본 논문은 아굴 어록의 문학적 구조와 수사학, 신약성경 주기도문과의 공명 지점을 살펴봄으로써 아굴 어록에 나타난 신학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Abstract>

Words of Agur(Proverbs 30:1-9):

Its Theological Meaning and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Wisdom Literature

Prof. Sun Myung Lyu
(Baekseok University Divinity School)

Words of Agur, namely Proverbs 30:1-9, provides an intriguing challenge for interpreters as both the confession of ignorance (30:1-3) and the prayer for modesty (30:7-9) find no close parallel in wisdom literature, either within or outside of the Bible. Thus in its current canonical locus Words of Agur is often regarded as an appendix to the main collection of proverbs either in the sense of an afterthought (an unintended result of its editorial process) or in the sense of a corrective (an intentional touch-up by the editorial hand). Interpreting the text is also complicated by the wide disagreement among scholars in demarcating the boundaries of subunits that constitute Proverbs 30.

In this paper I argue for the unity of the corpus as separated from other miscellaneous sayings, and that it offers a unique data for construing a theology of Proverbs. Agur's confession and prayer demonstrate both humility and piety rooted in the tradition of exalting divine revelation over human erudition. Moreover, Agur's prayer, the only specimen of actual prayer found in the book of Proverbs, is indispensable for the outlook of a theology of wealth and poverty. Agur's piety reverberates with several wisdom psalms, notably Psalm 73, and to a less extent with the revelatory theology foun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Far from being marginal to the wisdom theology, Words of Agur is central for a richer and more balanced wisdom theology of Proverbs.